

지역사회역량이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지역의 조절효과 -

이미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교수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The Effect of Community Capacity on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 Moderating Effect of Region -

Misook Lee

Associate Professor, Park Chunghee School of Policy and Saemaul,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38541, Korea)

Abstract

This study begins with an interest in community capacity, the basis for mobilizing community action and the driving force of community development.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ommunity capacity, social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life, and the impact relationship and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analysis data used the 2018 Korean Social Integration Survey, which is the statistical data for national approval. The analysis method was performed by using SPSS was used to perform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group analysis of AMOS was also perform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s the result of analysis, both the condition and status of community capacity and social participation, which are products of community capacity, showed a higher average of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etween community capacity,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groups were identified. In rural areas, both the capacity-condition and the capacity-status variables act as positive factors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but in urban areas, the path of capacity-condition, social participation, capacity-status and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social participation variables acted as a factor of direct and indirect negatively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quality of community capacity in rural areas is superior to that of urban areas.

Key words: community capacity, social participation, quality of life, SEM, multi-group analysis

1. 서론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요소들의 관계가 지역사회역량이다. 지역사회역량은 ‘지역사회수준에서 개인들 간의 응집성 있는 신뢰관계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협동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힘’(Minkler, 2004), 어떤

주어진 지역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인적자본, 조직자원, 그리고 사회자본간의 상호작용’(Chaskin, 2001: 7)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역량은 개념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지역사회역량은 공동체 정체성이란 요인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사회자본이 비교적 객관적인 지역사회의 조건들을

주요어: 지역사회역량, 사회참여, 삶의 만족, 구조방정식모형, 다중집단분석

* 주저자(이미숙) 전화: 053-810-2162, e-mail: misook@yu.ac.kr

의미한다면 지역사회역량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능동적으로 엮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재구성한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미시적 관계에 대한 인식과 활동에 관한 것이라면, 지역사회역량은 이러한 미시적 인식과 활동, 그리고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과 포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역량은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과정 및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 작동될 수 있다(Chaskin, 2001: 293).

지역사회는 지속적 사회화 과정에 기초한 친분과 혈연, 사회적 관계의 복합적 체계로 이는 지속적인 사회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다(Kasarda, & Janowitz, 1974). 지역사회는 새로운 세대와 거주자가 사회적 시스템에 동화되면서 그 자체가 스스로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개인은 상호 연결된 인적 관계망인 사회적 네트워크(socialnetworks)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사회적 친분과 유대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다(이규환, 2015).

그러므로, 지역사회역량은 공동체의 진화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준비되는 계획적인 활동이자 실천이다. 역량증진이라는 것은 개인과 조직, 즉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기회가 증진되며, 개인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거주지역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화 과정을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의 변화라고 규정한 토니스는 농촌을 공동사회로 설명하며 농촌생활의 훌륭한 가치는 농촌사람들 사이의 공동사회가 더욱 강하고 생기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Tönnies, 1963; 박경철, & 김성수, 2002).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와 농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갖게 되었고, 더불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집단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생활에서 필요한 욕구를 경제적 지출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부분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농촌에서 사회적 연결감은 훨씬 더 중요하고 존재가치가 클 수도 있다(박경순, 박영란, & 손덕순, 2020).

산업화 도시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문제가 동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농촌공동체의 변화와 도시주민의 개별화에 대한 계량적 비교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

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그리고 도시화의 문제와 견주어 생각해 볼 때 전통적으로 농민은 도시민과 달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연결감이 강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농촌사회가 현재도 도시지역에 비해 얼마나 유효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역량의 수준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역량이 사회참여와 개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2.1. 지역사회역량과 참여

지역사회역량(community capacity)은 사회자본, 사회적 결속, 지역공동체 능력, 지역공동체 역량개발 등과 유사한 용어로서 그 사용이 중첩되어 있다. 지역사회역량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정체성,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및 평등한 참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결속과 통합을 의미한다(Putnam, 1993). 또한 지역사회역량은 지역공동체가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공동체의 자조능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Poole, 1997).

Chaskin(2001)은 지역사회역량을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유지·증진하고 공동체의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자본, 조직자원, 사회자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면서 지역사회역량은 지역공동체 인식, 지역공동체 몰입, 문제해결능력, 자원동원능력의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역량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발전’이란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Gemeinschaft)를 넘어서 이질성에 기초한 연대 사회(Gesellschaft)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움직임은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린공간에 대한 정체감을 복원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역량 형성(Community Capacity Building)이란 지역사회 행동을 동원 또는 추동 할 수 있는 기초이자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협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의 미시적 축적이라 할 수 있다(Wilkinson, 1996).

지역사회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간의 상호교류, 소속감, 지역활동 참여의지, 공동체 역량의 변수가

주민참여와 사회적 경제 참여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Nisbet, 1953; McMillan, & Chavis, 1986; 서재호, 2013; 최문형, & 정문기, 2015), 신예철(2012), 신중진, 김일영, & 배기택(2013)의 연구는 공동체 조직의 역량과 사회발전과 참여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농촌과 도시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량 연구는 주로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농촌지역사회는 공동체의식이 도시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은 노동협동의 두레와 관혼상제에 대한 상부상조로서의 계와 같은 공동체적 전통(강대기, 2001), 대면적 인간관계가 가능했으며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동질성 형성(박경구, 1994),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어 높은 귀속성(배은석, & 박해궁, 2016)으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김성균, 2002; Wilson-Doenges, 2000)는 분석도 있다.

배은석, & 박해궁(2016)은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은 농촌거주 지역 주민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참여의향 또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은석, & 박해궁, 2016).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2018)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호 감정적 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 소속감이 생기게 되면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농촌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면 이웃과 관계가 원활해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며, 이를 통해 각종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이러한 지역사회역량의 기능은 지역사회역량의 지속가능한 구축과 더 질 높은 서비스, 정책결정에 대한 보다 큰 영향력, 그리고 의도한 문제해결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타난다. 궁극적인 성과는 기존의 지역사회역량의 기능을 통해서도 도래할 수도 있고, 공동체 역량구축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통해서도 개발되어질 수도 있다(Chaskin, 2001; 강용배, 2004 재인용).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참여는 공동체 활동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전체와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Helliwell, & Putman, 2004).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접촉의 빈도수, 가족통합 그리고 지원이 이용되는 정도로 조작화된 사회적 통합 역시 참여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elliwell, & Putman, 2004; Helliwell, 2006). 이러한 네트워크 참여는 소외계층의 부족한 자원들을 충족시키는 역할도 한다(Wakefield, & Poland, 2005).

따라서 지역사회역량의 1차 성과물이자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 활동을 사회참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지역사회역량과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공동체 시스템이 잘 운용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Sirgy et al., 2000). 사회구성원들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혼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욕구들을 충족하며,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협동에 이르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나 상호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Putnam, 2000).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미시적 기준인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심리적 기제로서 작동(Helliwell, & Putnam, 2004; Uslaner, & Dekker, 2003)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류와 신뢰는 심리적으로 개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심리적 기제를 넘어서 개인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원’(resource)으로 평가하고 있다(Bourdieu, 1986; Halpern, 2005; Lin, 2001; Portes, 1998; Rothstein, 2005).

그동안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는 사회적 관계, 즉 주로 사회 연결망과 사회신뢰가 집합적 수준에서 또는 개인적 수준에서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생산되었고 주목을 받았다(김혜연, 2011; 박길성, 2002; 박희봉, & 이희창, 2005; 신상식, & 수일, 2010; 이미라, 2011; 한세희, 김연희, & 이희선, 2010; 한준, 김석호, 하상용, & 신의철, 2014; Han, Kim, & Lee, 2013a, 2013b; Helliwell, & Putnam, 2004; Leunget al., 2011; Portela, Neira, & Salina-Jimenez, 2013; Sarracino, 2010; Tokuda, & Inoguchi, 2008; Yamaoka, 2008; Yip et al., 2007).

Synder et al.(1986)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구조가 사회참여를 쉽게 유도할 때 개인들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만족

도가 더 높게 분석된다고 제시하고 있다(신예철, 2012: 88; 재인용). 반면에 공동체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로 개인들 간 상호작용의 역할을 가진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과 조직의 측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조직역량은 중요한 요인이다(정지훈, & 정문기, 2017).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여 사회통합, 배제요인까지 포함하여 심리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활동과 태도에서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수준에서 사회적 포용과 배제에 관련된 차별과 불공정성, 사회갈등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적 관계의 미시적 차원을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포용과 배제의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좋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남들과 동등한 정도의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 인식은 삶의 만족의 정도를 낮추게 될 것이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합 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특히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여러 구성요들이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Helliwell, & Putnam, 2004; Helliwell, Layard, & Sachs, 2016; Leung et al., 2011; Portela, Neira, & Salina-Jimenez, 2013; Sarracino, 2010).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사회통합 요인들에 관심을 갖는 일련의 연구들도 사회통합 요인들이 삶의 만족과 행복에 국가수준 또는 개인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 김성아, 2014; 심수진, 2016; 우명숙, 김길용, 조병희, & 유명순, 2013; 이재열 외, 2014).

사회적 자본 연구가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회통합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관계 측면과 함께 사회적 자본이 보지 못하는 사회제도적 배제와 차별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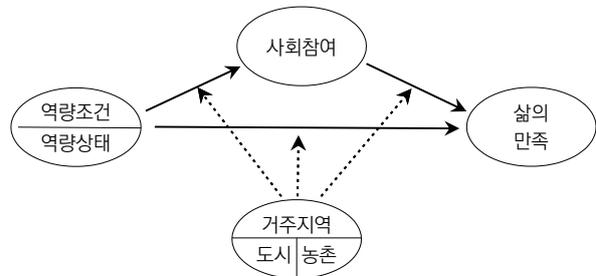
2.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살펴보았던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의 조건들을 지역사회역량 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역량의 조건과 상태를 선행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량의 조건은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의 관계수준(생활과 태도)으로 설정하고, 역량의 상태는 사회 인지수준(경험과 인식)으로 구분하여 역량을 측정함으로써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중요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관계적 역량은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의 연결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적 관계와 지지가 구조적 연결망의 확대 및 강화를 포괄할 수 있다.

또한 내생변인으로 사회참여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역량의 중간성과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행동인 사회참여를 확인하고, 최종내생변인인 개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역량 및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농촌은 농촌의 특수성을 지니는가?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비교를 통해 계량적 차이와 역량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위해 국가 승인 통계자료인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이 2018년 9

1) 이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다.

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조사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로서, 2013년 이후 매년 우리사회의 통합수준을 영역별로 측정한다. 2018년 조사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9개 부문을 중점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18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3.2. 측정도구

지역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기화 될 수 있는 역능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역능성의 출발은 개인의 관계와 소속에 대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역량의 조건', 이 조건에 따라 우리사회가 공유하는 규범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를 '역량의 상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역량의 조건은 현재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정체성,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인 간 소통,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한계적 소통을 포함한다. 지역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해 구성원으로 갖는 소속감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지역사회정체성 변수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로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계를 확장하여 질문하였으며,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종류와 질은 개인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네트워크의 총합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회의 질을 매우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지표이다. 고립감이 네트워크의 질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면 사회적 관계망은 네트워크의 현재적 상황을 양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관계망은 개인 간 소통과 한계적 소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개인 간 소통의 수준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가족, 친척의 내집단 연결망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평일 하루 접촉자 수를 5점 척도(①없음, ②1~2명, ③3~4명, ④5~9명, ⑤10명 이상)로 구성하였다. 외집단인 가족이나 친척의 평일 하루 접촉자 수를 7점 척도(①없음, ②1~2명, ③3~4명, ④5~9명, ⑤10~19명, ⑥20~49명, ⑦50명 이상)로 질문하였다. 한계적소통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를 위한 연결망으로 우울할 때, 몸이 아플 때,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5점 척도(①없음, ②1~2명, ③3~4명, ④5~9명, ⑤10명 이상)로 질문하였다.

지역사회 역량의 상태는 지역사회 집단 간의 호혜적 규범, 포용성, 소통의 정도를 포함한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가치는 그 지역사회의 관계가 얼마나 공동의 정체성과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사회응집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호혜적 규범은 주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야 한다와 도와 주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집단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은 서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집단, 자신의 집단과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등의 구성원을 얼마나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집단구성원(장애인, 결혼사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소통은 사전적으로 뜻이 서로 통하여 막힘이 없다는 것으로, 사회적 소통은 사회적 자본의 한 축을 구성하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하고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집단 간 소통(가족, 직장구성원, 이웃, 세대간)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참여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참여가 공적 영역이라면 사회참여는 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은 보다 풍부한 삶의 질을 피하는 동시에 보다 풍부하고 견고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역량의 조건과 상태의 산물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친목도모의 목적이 아닌 지역사회 공적참여인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봉사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만족은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과 개인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영역을 포함하여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측정도구로서의 대표성을 갖는지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MO(Kaiser-Meyer-Olkin) .748(>=0.5), 구형성 검정 결과 $\chi^2=59696.703$, $p=0.000$, $df=300$ 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구성요소의 Cronbach's α 의 값이 0.6이상임으로 변수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개인간 소통의 Cronbach's α 값이 .438로 통계적으로 신뢰성은 확보되지 않았

〈표 1〉 주요변수 및 구성요소의 신뢰도 검증

변수	구성요소	Factor Loading	Cronbach's α	Scales			
역량 조건	지역사회 정체성	살고 있는 읍, 면, 동에 대한 소속감	.893	.886	1~4		
		살고 있는 시, 군, 구에 대한 소속감	.928				
		살고 있는 시, 도에 대한 소속감	.885				
	개인간 소통	내집단연결망(가족, 친척)하루 접촉자 수	.817			.438	1~5
		외집단연결망(가족, 친척 외)하루 접촉자 수	.770				1~7
	한계적소통	우울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763			.741	1~5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857					
호혜적 규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야 함	.868	.667	1~4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는 것이 중요	.868					
역량 상태	집단구성원 포용성	집단구성원 포용정도(장애인)	.794	.809	1~5		
		집단구성원 포용정도(결혼 가정의 자녀)	.831				
		집단구성원 포용정도(외국인이민자, 노동자)	.819				
		집단구성원 포용정도(북한이탈주민)	.747				
	사회집단간 소통성	가족 간 소통	.673			.723	1~4
		직장 구성원 간 소통	.736				
사회참여	이웃 간 소통	이웃 간 소통	.773	.606	1~5		
		세대 간 소통	.775				
		시민단체	.739				
		지역사회 공공모임	.614				
삶의 만족	자원봉사,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762	.816	0~10		
		삶에 대한 만족도	.892				
		어제의 주관적 정서경험(행복)	.837				
		본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837				

으나, 개인의 사회관계망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요인적재치가 0.7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분석변수로 채택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25의 ML(Maximum Likelihood) 추정절차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분석변수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타당성 및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지역사회역량의 조건, 상태변인과 사회참여,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모형을 분석하고, 사회참여의 간접효과 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²⁾ 방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SEM 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다른 집단과의 모수치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는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equal constrained model)을

2) 부트스트랩(bootstrap)은 컴퓨터가 경험적으로 각종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즉 모수의 추정치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근사적인(approximate)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Amos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와 유의성 역시 부트스트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대업, 2008:150~151).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도시		농촌		X ² /df	P
		N	%	N	%		
성별	남	3244	49.9	731	48.9	.423/1	.516
	여	3262	50.1	763	51.1		
연령	19~29세	1138	17.5	218	14.6	70.208/4	.000
	30대	1218	18.7	201	13.5		
	40대	1451	22.3	300	20.1		
	50대	1609	24.7	411	27.5		
	60~69세	1090	16.8	364	24.4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25	3.5	94	6.3	140.967/6	.000
	100~200만원 미만	412	6.3	193	12.9		
	200~300만원 미만	898	13.8	263	17.6		
	300~400만원 미만	1327	20.4	286	19.1		
	400~500만원 미만	1333	20.5	257	17.2		
	500~600만원 미만	969	14.9	173	11.6		
	600만원 이상	1342	20.6	228	15.3		
학력	초졸 이하	170	2.6	148	9.9	278.593/3	.000
	중졸	381	5.9	167	11.2		
	고졸	2829	43.5	691	46.3		
	대졸 이상	3126	48.0	488	32.7		
계		6506	100	1494	100		

추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가중(structural weights)을 가한 모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적 가중 모형은 측정모형에서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 가중(measurement weight)에 측정변수절편에 대한 집단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적으로 가한 것으로 집단 간 비교분석에 있어 적합하다(김계수, 2010).

50대, 60대, 40대 순으로 농촌이 도시보다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측면에서도 도시는 300~500만원 미만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촌은 200~400만원의 소득군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 또한 도시가 대졸이 48%, 고졸이 43.5%로 전체 91.5%를 차지하는 반면, 농촌은 고졸이 가장 많은 46.3%이며 대졸이 32.7%순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의 인구환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 8000명의 모집단 층화는 1차적으로 시·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도 권역내에서 9개 도지역에 해당하는 10개 권역에 대하여 각각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여 2차 층화변수로 도시와 농촌 거주지역에 대한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도시거주자는 6506명이며 농촌 거주자는 1494명 이다. 성별을 제외한 연령, 가구소득, 학력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의 연령은 50대, 40대, 30대순인 반면 농촌지역은

4.2. 주요변수의 평균비교

지역사회 역량의 조건을 나타내는 정체성, 개인 간 소통, 한계적 소통에 대한 도시와 농촌지역 간 차이검증에 있어 지역사회 정체성과 개인 간 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표시하는 정체성과 가족, 친척 중심의 내적연결망, 그 외 사람들과의 외적 연결망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계적 소통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경험과 인식으로부터 축적될 수 있는 지역사회

〈표 3〉 주요변수의 평균비교

변수			<i>N</i>	<i>Mean</i>	<i>S.D.</i>	<i>df</i>	<i>t</i>
역량 조건	지역사회정체성	도시	6506	2.75	0.620	2172.361	-4.254***
		농촌	1494	2.83	0.645		
	개인간 소통	도시	6506	2.66	0.738	2160.709	-3.981***
		농촌	1494	2.75	0.774		
한계적소통	도시	6506	2.23	0.571	2127.547	0.564	
	농촌	1494	2.22	0.613			
역량 상태	호혜적규범	도시	6506	2.91	0.578	2226.73	-4.343***
		농촌	1494	2.98	0.579		
	집단구성원 포용성	도시	6506	3.09	0.758	2110.639	0.515
		농촌	1494	3.08	0.824		
사회집단간 소통성	도시	6506	2.72	0.508	2179.341	-1.772**	
	농촌	1494	2.75	0.525			
사회참여	도시	6506	1.19	0.448	1846.181	-11.837***	
	농촌	1494	1.39	0.637			
삶의 만족	도시	6506	6.41	1.386	2120.925	5.41***	
	농촌	1494	6.18	1.496			

*p< .05, **p< .01, ***p< .001

집단 간 규범과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호혜적 규범과 집단 간 소통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주변의 장애인, 결손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정도는 도시의 평균이 농촌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참여 활동은 농촌지역의 평균이 도시지역보다 참여의 정도가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인 개인의 삶의 만족 구성변수는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민의 삶의 만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기존 농촌연구에서 발견한 농촌다움이 삶의 만족은 될 수 있으나, 실제 도시민과의 비교에서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 어제의 행복의 정도, 자존감 모두 도시민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단편적으로 지역사회역량의 조건과 상태, 사회적 참여에 대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만으로도 지역사회역량은 농촌이 도시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삶의 만족은 도시민이 농촌주민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4.3. 측정모형분석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측정구조 형태를 가설화하고 신뢰성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시행하였다.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7.4.400(df=55)$, $p=.000$, RMSEA-.038, RMR=.033으로 기준치 .08보다 작은 만족한 결과를 나타낸다. 세부 모형적합도 지수 GFI=.987, AGFI=.978, NFI=.958로 모두 기준치 0.9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적합도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측정항목이 자료에 의해 잘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요인에 대한 개념신뢰도(0.7이상), 분산추출지수(0.5이상)가 임계치 이상을 보여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Fomell, & Lacker, 1981).

4.4. 지역사회역량이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역량이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 방정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604.543(df=54)$, $p=.000$, GFI=.989, AGFI=.981, RMR=.032, NFI=.964로 연구모형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회귀계수	S.E.	C.R.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역량 조건	지역사회 정체성	.342			.874	.678
	개인간 소통	.161	.032	14.391		
	한계적소통	.185	.036	16.986		
역량 상태	사회집단간 소통성	.432			.894	.725
	집단구성원 포용성	.066	.033	4.695		
	호혜적 규범	.287	.040	16.643		
사회 참여	시민단체	.881	.016	33.870	.992	.950
	지역사회 공공모임	.722	.031	28.752		
	자원봉사, 기부단체	.723				
삶의 만족	사회적 경제조직	.621	.021	34.228	.991	.952
	삶에 대한 만족도	.460				
	어제의 주관적 정서경험(행복)	.570	.014	59.791		
	본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664	.013	59.885		

$\chi^2=7.4.400$, $DF=55$, $RMR=.033$, $GFI=.987$, $AGFI=.978$, $NFI=.958$, $RMSEA=.038$

〈표 5〉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평가

Model	Default model	Saturated model	Independence model
χ^2	604.543	.000	16766.321
DF	54	0	78
GFI	.989	1.000	.720
AGFI	.981	-	.674
RMR	.032	.000	.322
NFI	.964	1.000	.000

구조모형의 각 경로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량조건→삶의 만족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량 조건→사회참여, 역량상태→사회참여, 역량상태→삶의 만족에 대한 모든 경로는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역량조건 즉 지역사회 정체성이 높고, 개인의 관계와 활동이 적극적일수록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량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 규범,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포용성, 집단구성원간의 소통의 정도는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사회참여→ 삶의 만족에 대한 경로계수는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모임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사회적 참여 증대가 시민사회의 발전이자 개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적 주장과 배치되는 분석결과이다.

〈표 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경로	표준회귀계수	S.E.	t
역량조건→사회참여	.019	.025	2.944**
역량조건→삶의 만족	-.022	.130	-1.926
역량상태→사회참여	.213	.023	10.536***
역량상태→삶의 만족	.564	.087	21.800***
사회참여→삶의 만족	-.151	.064	-7.022***

$\chi^2=604.543$, $DF= 54$, $GFI=.989$, $AGFI=.981$, $NFI=.964$, $TLI=.952$, $RMR=.032$, $RMSEA=.036$

*p< .05, **p< .01, ***p< .001

구체적으로 사회참여의 간접효과 유의성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및 총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양측 90%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역량조건→사회참여→삶의 만족에 대한 간접효과는 $\beta=-.003$, 유의확률 $p=.009$ 이며, 역량상태→사회참여→삶의 만족의 간접효과는 $\beta=-.032$, 유의확률 $p=.006$ 으로 두 경로 모두에서 유의수준 $p<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역량조건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를 통한 총 효과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 도시와 농촌지역 다중집단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도시와 농촌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표 7〉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역량조건→사회참여→삶의 만족	-.025	-.022	-.003**
역량상태→사회참여→삶의 만족	.531	.564	-.032**

*p< .05, **p< .01, ***p< .001

〈표 8〉 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결과

Model	NPAR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124	278.635	84	.000	3.317	.979	.989	.017
구조가중 제약모형(Structural weights)	97	951.298	111	.000	8.570	.930	.951	.031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도시와 농촌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 간 제약 없이 각각 모수를 다르게 추정하는 비제약 모형과 구조적으로 모수가 동일하도록 모든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수단으로 χ^2 의 변화량을 비교하였다.³⁾

분석결과 비제약모형은 $\chi^2(84)=278.635$ 이며, 구조가중제약 모형은 $\chi^2(111)=951.298$ 로 나타났다. 두 모형간 χ^2 값의 차이는 $\chi^2(27)=672.63$ 이다. 이는 χ^2 분포표의 유의수준 0.001의 임계치 55.5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구조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LI, CFI, RMSEA 등 모형 적합도지수도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 거주 집단사이에 지역사회역량과 사회참여,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구조모형은 인과관계 여부와 크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간 차이 검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각 경로 간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집단 간 세부경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추정모수들 간의 z검증통계량인 C.R.(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값의 차이가 1.96보다 크거나 2.58보다 크면 유의수준 5%, 1%에서 두 추정모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결과, 도시와 농촌집단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는 역량조건→사회참여, 역량조건→삶의 만족, 역량상태→사회참여이다.

역량조건은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 영향 모형에 대해 도시 농촌 간 C.R. 값의 차이가 2.476(역량조건→사회참여), 2.558((역량조건→삶의 만족)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역량상태 변수와 사회참여의 직접효과에 대한 C.R. 값이 2.601(역량상태→사회참여)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역량상태와 사회참여,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간의 경로 모형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역량조건→사회참여간의 경로는 농촌(.042***)과 도시(.032***)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보이며 농촌이 도시보다 다소 높은 경로계수를 나타낸다. 역량의 조건→삶의 만족의 경로관계는 농촌만 정(+)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농촌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정체성이나 개인 소통, 한계적 소통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도시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역량상태→사회참여 변수의 관계도 농촌지역에 있어서만 정(+)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해 사회집단간 소통이나 집단구성원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호혜적 규범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의 경로차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역량의 수준과 사회참여, 삶의 만족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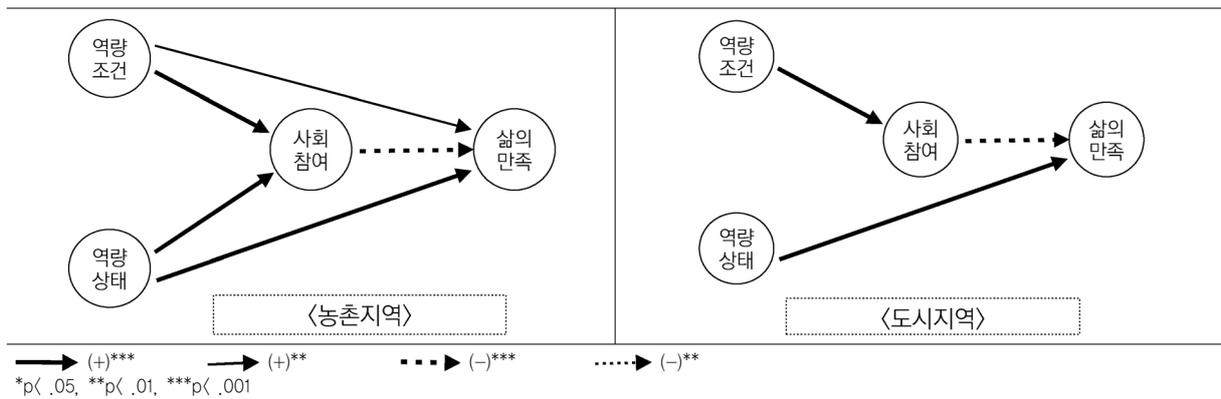
구성변수의 평균비교 결과 지역사회 역량조건에 있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정체성과 개인 간 소통에 있어 높은 평균을 보이며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역량상태변수에서는 호혜적 규범과 사회집단 간 소통에 있어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평균을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χ^2 의 차이값($\Delta\chi^2$)이 자유도 1에서 임계치인 3.84(p<0.05)보다 작은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표 9〉 도시 농촌 집단 간 경로 차이 검증

잠재변인→내생변인	도시			농촌			Group difference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Δ β	Δ C. R.
역량조건→사회참여	.032	.024	5.825***	.042	.076	4.431***	.01	2.476
역량조건→삶의 만족	-.015	.128	-1.577	.027	.265	2.078*	.177	2.558
역량상태→사회참여	.021	.026	.887	.152	.092	2.947**	.131	2.601
역량상태→삶의 만족	.551	.091	21.081***	.392	.253	7.225***	.159	-0.309
사회참여→삶의 만족	-.113	.062	-5.780***	-.200	.154	-3.371***	.087	-0.971

*p< .05, **p< .01, ***p<.001



〈그림 2〉 도시와 농촌지역 경로 차이

지역사회역량의 행동산출인 사회참여 또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유의미한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지역에 있어 역량조건인 지역사회정체성, 개인 간의 소통, 한계적 소통은 지역사회역량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역량의 조건과 상태 그리고 역량의 산출인 사회참여 모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 분석결과 역량조건→사회참여, 역량상태→사회참여, 역량상태→삶의 만족의 경로는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참여→삶의 만족의 경로는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매개변수인 사회참여는 직·간접적 부(-)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시와 농촌 집단 간 비교 분석결과 사람의 경험과 인지를 기반으로 한 역량상태는 도시와 농촌 모두 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역량조건은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에 있어 정체성, 개인 간의 소통, 한계소통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농촌지역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촌사회가 여전히 공동사회로서 더욱 강하고 생기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박경철, & 김성수, 2002), 사회적 연결망

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박경순, 박영란, & 손덕순, 2020)와 유사하다.

농촌의 인간관계가 도시의 인적교류보다 높다는 동질성에 기반한 농촌사회의 특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역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역량의 긍정적 기능이며, 공동체개발에서 요구하는 지역사회역량의 바른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지역사회역량의 질이 도시지역보다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있어 사회참여의 특징과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좋은 시민사회의 조건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우리사회의 참여는 삶의 만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 사회참여는 도시보다 더 강한 부정적 영향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 갤럽월드폴, 아시아바로미터 자료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Zhou, 2014). 또한 주민이 지역사회 공공조직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역량을 성장시킨다고 분석하였다(정민수, 조병희, & 이성천, 2007; Pothukuchi, 2005). Helliwell, & Putnam(2004), Bartolini, & Bilancini(2011), Sarracino(2010)은 지역사회내의 집단간의 사회적 관계, 결사체 참여활동의 변수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고, Diener, & Seligman(2002)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참여가 사회안전성 인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이미숙, 2019)하였으며, 청소년 대상연구에서도 공식참여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서정아, 2013).

이는 서구사회가 가지는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삶의 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사회의 참여의 주체와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농촌은 계량적인 삶의 만족의 수준에서는 도시보다 낮은 평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역량의 수준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역량의 바람직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사회의 지역사회역량 수준이 도시보다 높고, 지역사회 구성요소가 잘 작동되는 공동체기반 연대사회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가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통해 역량의 조건과 상태를 변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서 지역사회정체성과 개인 간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역량조건이 농촌지역보다 취약함으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속에서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는 사회자본이나 공동체意識의 확대된 개념인 지역사회역량 변수를 개인의 관계수준(역량조건)과 사회인지 수준(역량상태)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반면에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사회참여의 동기, 참여활동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측정 지표 설계와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가 분석한 사회참여의 긍정적인 영향이 한국사회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지, 한국사회의 독특한 사회참여의 특징과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 강용배. (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4), 5-26.
3.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4.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6.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7. 박경순, 박영란, & 손덕순. (2020). 사회적 연결감과 우울의 관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667-677. DOI:10.5392/JKCA.2020.20.02.667
8. 박경철, & 김성수. (2002).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간 지역사회친밀도 비교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1), 87-100.
9.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10.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농촌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25(3), 135-148. DOI:10.12653/jecd.2018.25.3.0135
11. 박희봉, &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9.
12. 배은석, & 박해금.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13. 서인균, & 이연실. (2019). 다집단분석을 통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자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연구. *보건과 복지*, 21(1), 75-96. DOI:10.23948/kshw.2019.03.21.1.75
14. 서재호. (2012). 국내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과 행정학에 대한 함의: 연구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2(4), 155-182.
15. 서정아. (2013).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신상식, & 최수일. (2010).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텔관광연구*, 12(3), 173-189.
17. 신예철. (2013).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신중진, 김일영, & 배기택.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계획*, 48(6), 43-56.
19. 심수진. (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5-47.
20. 우명숙, 김길용, 조병희, & 유명순. (2013).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가: 5개국의 개인 삶의 만족과 사회갈등해소역량. *국제·지역연구*, 22(2), 87-120.
21. 이규환. (2015). 지역사회자본과 지역애착, 역량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이미라. (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4), 413-443.
23. 이미숙. (2019). 개인수준의 지역사회역량이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안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연구*, 21(1), 153-171.
24. 이세훈, 안승호, Nguyen, & Van Thanh Truong. (2012). 한국농촌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21, 131-154.
25. 이재열, 구혜란, 남은영, 정해식, 안상훈, 정병은 et al. (2015). *한국 사회의 질*. 서울: 한울.
26. 정민수, 조병희, & 이성천. (2007).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연결망과 지역사회역량. *보건행정학회지*, 17(4), 54-81.
27. 최문형, & 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28. 한준, 김석호, 하상응, &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29. 한국행정연구원. (2018).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30. 한세희, 김연희, & 이희선. (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31. Bartolini, S., & Sarracino, S. (2011). *Happy for how long? How social capital and GDP relate to happiness over time*. Working Paper No 2011-60, Luxembourg: CEPS/INSTEAD.
32.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2-258). Westport, CT: Greenwood Press.
33. Chaskin, R. (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 definitional framework and case studies from a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Urban Affairs Review*, 36(3), 291-323.
34.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DOI:10.1111/1467-9280.00415
35. Fornell, C., &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36. Halpern, D. (2005). *Social capital*. Malden, MA: Polity.
37. Han, S., Kim, H., & Lee, E. (2013). The contextual and compositional associations of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happiness; A multilevel analysis from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 1183-1200.
38. Helliwell, J.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 35-45.
39. Helliwell, J., &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The Royal Society*, 359, 1435-1446.
40.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6). *World Happiness Report*. 2016(1), <http://worldhappiness.report>
41.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42. Kasarda, J. D., &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9. DOI:10.2307/2094293
43. Leung, A., Kier, C., Fung, T., Fung, L., & Sproule, R. (2011).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Happiness Study*, 12, 443-462.
44. Lin, N. (2001). Guanxi: A conceptual analysis. In A. Y. So, N. Lin & D. Poston (Eds.), *The Chinese triangle of mainland China, Taiwan, and Hong Kong*. Westport: Greenwood Press.
45. Matsushima, M., & Matsunaga, Y. (2015).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6(4), 1016-1045.
46.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47. Meredith Minkler, M. (2004). Ethical challenges for the

- "Outside" researcher i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Health Education & Behavior*, 31(6), 684-97. DOI:10.1177/1090198104269566
48. Nisbet, A. (1953). *The quest for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9. Poole, D. (1997). Building community capacity to promote social and public health: Challenges for Universities. *Health Social Work*, 22(3), 163-175.
 50. Portela, M., Neira, I., & Salina-Jimenez, M. (2013).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urope; A new approach on social capita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 493-511.
 51.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52. Pothukuchi, K. (2005). Attracting supermarkets to inner-city neighborhoods: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box.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9, 232-244.
 53.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54. Putnam, R., Leonardi, R., & Nanett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55. Rothstein, B. (2005). *Social traps and the problem of trus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56. Sagiv, L., & Schwartz, S. H. (2000). Value prior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rect relations and congruity eff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2): 177-198. DOI:10.1002/(SICI)1099-0992(200003/04)30
 57. Sarracino, F. (2010).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trends; Comparing 11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 482-517.
 58. Sirgy, M., Widgery, R. N., Lee, D., & Yu, G. (2010). Developing a measure of community well-being based on perceptions of impact in various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 295-311. DOI:10.1007/s11205-009-9479-9
 59. Tokuda, Y., & Inoguchi, T. (2008). Interpersonal mistrust and unhappiness among Japanese peo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 349-360.
 60. Uslaner, E., & Dekker, P. (2003). The 'social' in social capital. In P. Dekker & E. M. Uslaner(Ed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pp. 176-18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61. Wakefield, L., & Blake P. (2005). Family, friend or fo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relevance and role of social capital in health promo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60(12), 2819-2832.
 62. Wilson-Doenges, G. (2000).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and fear of crime in gated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597-611.
 63. Yamaoka, K. (2008). Social capital and health and well-being in East Asia: A population-based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66, 885-899.
 64. Yip, W., Subramanian, S., Mitchell, A., Lee, D.,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 35-49.

Received 20 June 2020; Revised 25 July 2020; Accepted 03 September 2020



Dr. Misook Lee i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Saemaul Studi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Yeungnam University. Her major is community development. She is interested in social capital,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welfare. Address: (38541) Department of Saemau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SPS,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misook@yu.ac.kr
phone: 82-53-810-2162